

# 2022년 제2회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공모 주제: 우리 시대의 정의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 목 차

1. [총장상] 대성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레이먼드 카버 「대성당」(1983) - 김희연 ..... 1
2. [교무처장상] 다양성의 도약 - 김나현 ..... 4
3. [교양교육원장상] 엄마의 정의, 우리 시대의 정의 - 정찬권 ..... 7
4. [교양교육원장상] 정의를 향한 발걸음 - 박찬우 ..... 10

[총장상]

## 대성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이먼드 카버 「대성당」(1983)

김회연(기계공학부)

언제부턴가 ‘차별’이라는 말이 마치 무슨 접미사 같다고 느낀다. 날이 갈수록 이 접미사가 붙을 수 있는 명사는 늘어나고 있다. 지역과 종교, 인종과 장애, 성별과 외모, 빈부와 지위. 그만큼 차별이 많아지고 자연스러워졌다는 뜻일까. 그보다는 차별을 발견하는 우리 눈이 전보다 밝아졌다고 해 두자. 과거엔 없던 차별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생겨났다기보다는, 늘 존재했지만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숨은 차별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일 테니 말이다. 요컨대 차별은 어디에나 있고, 많은 경우 숨어 있다. 차별의 운명이 계속 그렇게 잘 숨어 있거나 발각되어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라면, 차별이 숨어들어 있을 사각지대를 부지런히 수색해야 하는 것은 정의의 운명일 것이다.

최근 읽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 「대성당」은 차별에 관해 말한다. 차별에 관해 그냥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극복하는지를 보여 준다. 좋은 소설은 좋은 질문을 던진다고 했던가. 그런데 종종 어떤 소설은 좋은 해답을 내놓기 때문에 좋은 소설이 되기도 한다. 「대성당」은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이 소설은 그 자체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세심한 답변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 미국의 이 뛰어난 작가는 우리 시대가 정의로운 시대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상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전한다. 그는 열렬히 주장하기보다 조용히 제시하는데, 다시 말해 누구도 차별하지 말자고 쉽게 내뱉는 대신, 차별받을 그 누군가를 상상해 보자고 아름답게 제안한다. 고작 열 페이지를 겨우 넘기는 이 짧은 소설이 우리를 얼마나 먼 곳까지 데려가는지, 먼저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어느 날 아내가 오랜 친구 ‘로버트’를 집에 초대한다. 그리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된 ‘나’와 아내, 그리고 로버트. 이 즐거운 자리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딱 하나, 로버트가 맹인이라는 점이다. 아내와 로버트는 오랜 기간 녹음테이프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아 온, 매우 절친한 사이이다. 문제는 ‘나’ 쪽인데, 아내와는 달리 ‘나’에게는 맹인 친구가 없고, 맹인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본 것들만 겨우 떠올릴 수 있을 뿐이다. “내게는 그의 방문이 달가울 리 없었다. 나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다.” (『대성당』(문학동네, 2007), 287면) 감출 수 없는 어색함으로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한껏 불편함을 드러내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어버린다. 이제 거실에는 ‘나’와 로버트 둘뿐. 맹인과 단둘이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그는 텔레비전을 켜다. (그야말로 최악의 행동이 아닌가.) 볼 만한 것이 없어 무의미하게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마침 화면 속에는 교회와 중세에 관한 다큐멘터리. 대성당이다. ‘나’는 맹인에게 이렇게 묻는다. ‘대성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당신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로버트는 그에게 대성당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지만 대성당을 말로 표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결국 그들은 함께 대성당을 그려 보기로 한다. 우리의 주인공이 펜을 꼭꼭 눌러 종이 위에

대성당을 그려 나가는 동안, 로버트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다. 그의 형편없는 그림 실력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둘은 대성당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간다. 이윽고 잊을 수 없는 맹인의 마지막 대사. “이제 눈을 감아보게나.”(같은 책, 310면) 이제 그들은 함께 눈을 감고 대성당을 그려 나가기 시작한다.

요컨대 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상상’에서 찾는다. 작중 ‘나’의 상상 말이다. 그는 대성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는 자의 그 ‘볼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화면에 등장하는 대성당의 버팀도리와 첨탑과 벽화와 이무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을 맹인에게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그의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맹인이었던 적 없기 때문에 가깝다. ‘보는 자’의 지위에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 설명해주는 일은, 그 설명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본질적인 물이해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둘이 애초에 다른 곳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질적인 ‘이해’란 둘 중 한 명이 상대방이 될 때만 가능하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볼 수는 없을 테니, 보는 자가 잠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상상이 개입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주인공이 눈을 감고 대성당을 그려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는 대성당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을 상상한다.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곧 편견의 넓이다. 작품 초반에 우리 주인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맹인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웃는 법이 없었다.”(287면),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사람이, 상상해보라, 덩수룩하게 턱수염을 기른 모습을! 맹인에다가 턱수염이라니! 어이쿠, 맙소사”(293면),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검은 안경을 쓰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맹인들에게는 검은 안경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도 그런 안경을 썼으면 싶었다.”(295면) 숨어 있는 차별이 보이시는지? 이 말들이 지닌 거리감은 그만큼의 부피를 지닌 폭력이 된다. 너와 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얼마든지 더 큰 폭력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상상력이란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다. 상상력은 나와 타자 간의 거리감을 일축한다. 보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에게 친히 설명해 줄 때가 아니라, 보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겨우 상상할 때,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 것이다. 후반부에서 작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주인공의 대사를 보라.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대성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있습니까?”(305면) 맹인의 삶을 ‘상상’해 보는 것. 그 상상이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둘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사려 깊은 상상력은 ‘나는 곧 너’라는 궁극의 동일감에 우리가 도달하게끔 만들 수 있다. 그곳에서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맞잡은 둘의 손에서 비로소 하나의 대성당이 그려질 것이다.

어느 평론가가 쓴 ‘윤리적인 상상력’이란 표현을 나는 기억한다. 어떤 상상이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것일 때 그것은 윤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요지의 표현이었을 텐데, 카버의 「대성당」을 읽으며 나는 이를 ‘정의로운 상상력’이라 바꾸어 말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주인공의 상상은 우선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윤리와 접촉하지만 더 나아가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그가 눈을 감고 펜을 쥐며 온몸을 동원하여 맹인을 상상할 때, 그 상상력은 나와 타인 사이에 그어진 일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원동력이 된다. 문제는 그 경계선이 꼭 시각의 유무로만 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가능한 모든 ‘다름’은 잠재적인 경계가 된다. 앞서 말했듯이 ‘차별’ 앞에 붙을 수 있는 모든 말들(지역과 종교, 인종과 장애, 성별과 외모, 빈부와 지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다름’은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낼 동일감으로 상쇄될 것이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나는 곧 너’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상상할 줄 안다는 사실로써 극복되는 게 아닐까. 「대성당」의 초반부에서 ‘나’에게 맹인은 맹인일 뿐이지, ‘로버트’가

아니다. 맹인에 대해 상상해 본 적 없는 이는 시각 장애라는 벽을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 그 벽 너머는 그에게 영원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차별이 있는 곳은 곧 상상이 닿지 않는 곳,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한 상상의 사각지대다. 그리고 정의란, 그 상상의 사각지대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모든 상상력이 정의로운 것은 아닐지언정 모든 정의로운 것은 섬세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집중하게 하는 힘을 집중력이라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힘을 창의력이라 한다면, 우리 안에 정의를 실천하게끔 하는 모종의 힘은 ‘정의력’이라 부르면 될까. 그러나 우리가 없는 말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을 텐데, 이미 마땅한 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상상력이다. 다시 말해 상상력이 정의의 충분조건이다. 타인에 대해 상상할 줄 모른다는 것은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모든 차별과 불공정은 상상력의 부족이 그 원인일지 모른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면, 그간 우리가 타인을 충분히 상상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을 상상할 능력도 의지도 잃었을 때 정의는 무너진다.

작은 이야기에서 출발했으나 큰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어난 전쟁에 대해 말해야겠다. 지금까지 적은 대로 말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은 타인에 대한 상상을 극단적으로 거부한 몇몇 이들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확신하건대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지에 관해 결코 상상해 본 바 없다. 카버 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절대로 맹인이 떠올릴 대성당의 모습을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그들에게는 사각지대였을 테니. 그러니 이 전쟁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상력을 말해야 한다. 상상력 없이는 누구도 스스로 타자가 되어 상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결코 갖지 못했을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상상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무처장상]

## 다양성의 도약

김나현(영어영문학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당시에 무엇이 유행했고, 보편적인 개인이 우선하던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회적 인 간상은 어떤 것이었는지와 같은 것들을 말이다. 이처럼 미디어는 개인에게 단순히 유희적 경험만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타임 머신과 같다. 그런 점에서 슈퍼히어로 영화를 제작하는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들 역시 시대와 함 께 흐르는 동적인 특성을 갖는다. 개봉 시기가 되면 항상 영화관 좌석을 뺄뻣이 채울 만큼의 인 기를 지닌 그들의 영화에서도 배경이 되는 시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마블의 최근 행보는 특히나 흥미롭다.

마블 스튜디오가 최근 OTT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공개한 슈퍼히어로 드라마에서는 등 장인물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물론 슈퍼히어로도 개성 빼면 시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유 의 캐릭터성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전과는 다른 특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외모나 초능력 외에 도 각 인물을 구성하는 더 섬세한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인물에게 한층 입체적인 모습과 강한 개 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들이 무대 위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다양성이다.

마블 스튜디오의 드라마 “문나이트”<sup>1)</sup>의 주인공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있는 남성이다. 그의 세 인격 중 한 인격은 영국식 영어, 다른 인격은 미국식 영어, 그리고 마지막 인격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인생사도 제각각이다. “팔콘과 윈터 솔져”<sup>2)</sup>에서는 흑인 슈퍼히어로가 겪는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호크아이”<sup>3)</sup>에는 한쪽 다리에 의수를 착용한 청각장애인 여성이 주인공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남자 주인공 역시 일상생활 중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가장 최근 공개된 드라마 “미즈 마블”<sup>4)</sup>의 주인공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으로, 작중에서 유색인종 소녀인 자신이 세상을 구할 영웅이 될 수 있겠냐고 자조적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주인공은 신비한 유물의 힘을 빌려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 을 보인다.

몇 안 되는 예시지만 여러 특성을 지닌 다양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다. 마블 스튜디오의 첫 슈퍼히어로 팀업 영화 “어벤져스”<sup>5)</sup>에서 남성 다섯 명과 여성 한 명으로 구성된 백인 인물 여섯을 주연으로 내세운 것과 비교하면 놀랍도록 큰 차이 가 있다. 해당 영화의 캐스팅 구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주연 인물이 속한 풀의 범위

1) <문나이트>, 2022.3.30 공개, 디즈니플러스 스트리밍  
2) <팔콘과 윈터솔져>, 2021.3.19 공개, 디즈니플러스 스트리밍  
3) <호크아이>, 2021.11.24 공개, 디즈니플러스 스트리밍  
4) <미즈 마블>, 2022.6.8 공개, 디즈니플러스 스트리밍  
5) <어벤져스>, 2012.04.26. 개봉, 디즈니플러스 스트리밍

차이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마블 스튜디오가 이처럼 의식적으로 다양성을 고려해 새로운 인물을 설계하고 배우를 캐스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많은 관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도 물론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핵심을 건드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주연을 빛내기 위한 조연으로만 존재했던 비백인과 여성이 온전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고, 기존의 ‘완벽함’에 들어맞지 않는, ‘결함이 있는’ 영웅이 그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기존의 슈퍼히어로물이 주는 재미와 자극을 망친다며 비판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대형 제작사인 마블 스튜디오가 비판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넓은 지구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인간은 정말 다양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모두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을 가진 생물종으로 분류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수만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80억에 육박하는 다양한 개인 중에서 임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연의 자리를 부여하고 미디어에 내보내는 것은 상당히 차별적인 행위이다.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분명히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이 비주류로 취급되거나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마블 스튜디오의 행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현시대의 특성이자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 중 하나는 다양성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양성은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생겨난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곁에 있었다. 단지 그것을 굳이 수면 위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견고한 사회적 위치와 권리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만큼 형평성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다양성의 선택적 제시에 익숙해져 이제는 그것이 마치 다수의 만족과 미학적인 쾌락을 위해 용인해야 하는 합의라는 듯이 여기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상적 인간상이라는 조건이 다른 아닌 외형, 종교, 경제적 계층이나 심지어는 인종과 같은 것들까지 요구한다는 점이 말이다.

종종 사회는 개인을 해부하여 그들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저울 위에 올려놓곤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요소 외에 부가적인 부분마저 말이다. 이때 저울의 소유자들, 즉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권리를 누려오던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은 응당히 소유해야 할 그들의 가치를 다수의 타인으로부터 허가받곤 했고, 심지어는 더 적은 권리를 부여받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흐릿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종 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되고, 성차별을 용인하는 태도는 비난받고, 공교육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기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흑인 시민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한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편리한 수단이어야 할 대중교통을 거대한 장벽처럼 느끼며, 최근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낙태가 금지되었다.

어릴 적 보던 마법 소녀나 변신 히어로 만화영화에서는 항상 정의를 추구하는 주인공이 등장했다. 공교육 시스템에서도 칠판 위 글씨보다 지우개 씨름이 더 중요한 어린 아이들을 책상 앞에 앉혀 두고 사회와 개인의 정의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한다. 중학생 때는 수행평가 대상 도서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sup>6)</sup>를 읽은 뒤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맨 기억이 있다. 이처럼 정의는 우리 곁에서 항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왜 어려울까? 왜 다양성의 도약이 좌절된 사례가 자꾸 등장할까?

정의는 특정한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다. 부드러움처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6)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김영사, 2011.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은 추상적 개념인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간단하다. 마법봉을 휘두르고 악당을 물리친다. 여기서 정의가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바로 정의는 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특징과 관련하여 흔히 법을 시행하는 자, 또는 준법자를 정의의 시행자라고 오판하곤 한다. 판사봉이 마법 소녀의 마법봉처럼 정의를 똑딱 행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였다면 얼마나 편했을까?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다. 법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단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판단과 행위 규범을 세세히 규정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법과 정의를 동일시하는 순간, 정의는 고착되어 행동력을 잃는다.

마찬가지로 정의는 절대적으로 규정될 수도 없다. 이것이 정의의 시행을 까다롭게 만드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한다.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면 되기에 쉽지만, 동시에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부정의한지를 우리가 몸담은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그리고 각 개인의 존재와 윤리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한한 양의 변수가 적용되어 발생하는 무한한 가짓수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정의 역시 획일화되어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도화된 사고 능력과 의식을 활용해 매 시대의 정의를 만들어왔다.

그렇다고 정의가 허무맹랑하다거나 모든 개인의 판단이 정의로운 것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변화하듯이, 정의 역시 가변적일 뿐이다. 또한 가변적이어야 한다. 과거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은 참정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고,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핍박받았을 것이며, 수많은 독재자들은 여전히 칭송받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들은 과거의 정의였으나,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모두 편협하고 부정의한 행태들이다. 다수가 합의한 정의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소수가 있었기에 인간은 옳은 것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정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모든 정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후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각자의 정의를 논의하고, 나아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한 시대, 한 사회, 한 문화의 정의가 일시적으로 성립된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사회가 얻게 된 성과는 논의에 참여하는 개인의 다양성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마블 스튜디오는 더 이상 백인 남성 히어로만을 스크린에 내보내지 않는다. 성별과 인종과 종교, 장애 여부나 성적 지향성, 사용하는 언어, 외형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획일화된 인물상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라도 다양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블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다. 미디어 콘텐츠와 함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늘어나는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대의 정의를 시행하는 행위이다.

정의는 마치 무지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무지개의 개념을 알고 있고 시각화할 수도 있지만 그 실체를 손에 쥌 수는 없다. 무지개를 잡겠다고 뛰어가다 보면 마주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허공뿐이다. 그렇지만 손에 넣을 수 없다고 무지개가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진 않는다. 여전히 사람들은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 간직하고자 한다. 정의도 마찬가지다. 정의는 실체가 없고 심지어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좇는 것과 같다. 우리는 법을 제정하고 매 순간 판단하면서 정의의 아름다움을 삶 속에 가져오고자 노력한다. 모든 개인의 노력 덕에 지금까지 정의는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고, 그 흔적을 발판 삼아 지금의 정의가 존재한다. 또 다음 시대가 더 큰 발돋움을 시도하도록 돕는 발판이 되기도 할, 다양성의 도약이 말이다.

## 엄마의 정의, 우리 시대의 정의

정찬권(사회학과)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정의라는 것은 단일한 하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 때는 아직 순수했으며, 세상의 쓴 맛을 보기 전이었다. 정의는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움직이지도 않아 고고하고도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정의는 첨단의 개념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의 자신이 정의가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들을 모두 단칼에 베어버려야만 할 거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다.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험한 일을 겪기 시작하고, 집안 사정이든 집안 분위기든 모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때이다. 내가 한 때 정의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것은 인생을 살아가며 좌절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았다. 어릴 적의 패기로 쌓아 두었던 확신이 무너져버린다는 것은 큰 상처다. 그러다보니 항상 급변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정의라는 것이 단일한 하나이며 운동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부조리를 겪으며 세상과 참으로 많은 불화를 겪었다. 아직도 악몽을 꾸게 하는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교사로 부터의 방치 혹은 폭력과 허무맹랑한 잔소리. 그리고 아직도 생생한 엄마로부터의 가정폭력...

그래서 또 한 번은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세상이 항상 급변하며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정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엄마로부터의 가정폭력은 이러한 생각에 크게 일조했다. 그러다가 철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우리가 현대에까지도 숭고하게 여기는, 특히 정의, 양심의 가책과 같은 윤리형이상학적 상위개념들이 실상은 추악한 계보학적 역사를 통해 정립된 것임을 밝혀낸다. 푸코 또한 우리가 정의에 준하는 것으로 여기는 정상성이나 형법과 같은 것들이 비슷한 역사를 통해 정립됐음을 주장한다. 이 둘을 접한 것도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된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뒤로 매일매일을 지독한 염세주의속에 빠져 살았다. 이데아라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세상에는 추악한 것들만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럴수록 내 정신 상태도 궁지로 몰리는 기분이었다. 상위 개념 따위를 내세워 논증이나 활동을 행하는 자들만 보면 비웃음이 나왔으며, 아직 세상의 피안을 보지 못해 저러한 선전 따위를 일삼는다고 생각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위 두 생각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특히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더욱 잘못된 생각이었다. 정의가 시공간을 초월한 단일한 하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충분조건이거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정의는 시간에 걸쳐, 공간에 분산되어 여럿으로 존재할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와 맞먹는다면 맞먹을 정도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생각의 변화의 계기는 놀랍게도 내가 어릴 적에 나를 그렇게나 때려서 나로 하여금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게 만든 우리 엄마였다.

한 중학교 즈음 나의 정의관이라는 것이 박살나기 시작하며 내가 세상과 본격적으로 불화를 겪을 때, 엄마는 나를 폭력으로밖에 다스릴 줄 몰랐다. 내가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르든, 담배를 피고 다니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엄마의 폭력의 강도는 처음에는 그래도 격식을 갖춘 매질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일탈이 멈추지 않으니 엄마의 폭력의 강도도 점차 세졌다. 내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고1 때쯤 엄마에게 복부를 발로 채이고, 멍살을 잡힌 채 따귀를 연속으로 맞은 것이다. 사실 나의 일탈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 까지 오래 간 것은 엄마의 그러한 대응 방식도 영향이 있겠다. 나는 당시 내가 자꾸만 었나갈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엄마가 부모로서 제대로 파악해서 부드럽게 해결해주기만을 기대했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고2 쯤으로부터 내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엄마도 나를 다시는 특별히 건드리지는 않았다. 지금은 입시에 성공하고 했다 할지라도 나의 모성박탈에 대한 트라우마는 대입 후에도 남아있던 것이었다. 대학교에 와서도 나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자해와 같은 이상행동으로 해소하고자 했고, 그걸 말리려하는 엄마와 다시 싸울 때 마다 과거에 있었던 모성박탈에 대해 호소했다. 그러면 엄마는 자기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론했다. 항상 엄마는 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나에게 더 신경써주고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부드럽게 해결해줬을 여지가 있지 않았냐고 다시 따졌다. 그러다보니 집안에는 매일같이 고성이가 오갔다. 결국 타인 간의 물리적 폭력의 교환만이 사라졌을 뿐 우리 둘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 투성이었다.

어느 때와 다름 없이 집에서 한참 고성을 질러대며 싸운 날이었다. 한참 싸운 후에, 엄마가 웬 일인지 차분한 목소리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다. 그 때 나는 무언가에 홀린듯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다. 술을 마시며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한 얘기들은 잠시 뒤에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전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과거에 나를 잘못 키운 거 같다며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우습다. 약 10년 동안 응어리졌던 나의 엄마에 대한 거대한 분노는, 엄마가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니까 사르르 녹아내렸다. 나는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도 미안하다고 했다. 그 후로 서로 몇 마디를 나누고 난 후에야 나는 엄마의 '정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우리 집 형편 상 나를 그렇게 매질로써 훈육하면서 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것이 그녀의 정의였던 것이다. 우리 집은 투자든, 사업이든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맛벌이를 시작했다. 처음엔 엄마는 공장 잡부일을 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쫓겨나듯이 다른 동네로 와서 자영업을 하던 우리집 형편이었다. 자영업은 고됐다. 부모님은 12시간씩 2교대 맞교대로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자식에게 신경쓸 겨를이라고는 없었고,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하기를 기대하실 수 밖에 없었다. 아빠는 내가 어떻게 자라는 지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엄마의 정의로는 당장 자기는 눈 앞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더 중요했다고 한다. 하루 열 두시간의 노동, 그리고 그 과도한 노동이 안겨준 허리병신 신세.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부모님은 내가 공부라도 열심히 하기를 바라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계속 었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때리기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엄마가 할 수 있던 최선의 선택이다. 내가 엄마가 나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부드럽게 해결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배부른 생각이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일에 채이며 살던 허리 병신 그녀에게 나는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지우려 했던 건 아닐까 싶다. 그 때 엄마와 술을 마시며 나눈 대화 덕분에 이러한 정황이 바로 이해가 됐다. 그리고 어릴 적 수 없이 맞은 경험은, 가족 관계에서는 진심을 담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쉽게 잊을 수 있

는 거였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내가 백날 그릇됐음을 지적해도 자신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이 한 행위가 자신의 정의이며 절대로 틀림이 없다고 믿었던, 철옹성 같던 그녀가 그 때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여기서 아무리 첨단, 단단하고 강력한 개인의 정의도 때가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에게 있어서 과거에 맞는 정의가 따로 있었고, 그것이 그 때 필요한 새로운 정의로 바뀌었던 것이다. 우리 집의 형편상 갖추 수 밖에 없었던 최선의 정의에서, 나의 모성 박탈의 트라우마를 감싸줘야 한다는 정의로. 그렇기에 그 때 나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한 것일 테다.

나는 엄마의 정의가 이렇게 변화한 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정의가 어떠해야 하는 지도 생각할 수 있었다. 만약 정의라는 것이 단일한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면 결국 어릴 적 나와 같이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정의 또한 단일한 하나로써 존재해야 할 것이기에 나의 모성박탈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세상은 결국 질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의는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적절하게 바뀌어야 한다.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와, 내가 대학생이 됐을 때 엄마가 다른 정의를 가졌던 것 처럼. 그렇게 해서 나의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정의도 시간에 따라 그리고 공간에 따라 적절하게 바뀔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보면 니체나 푸코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쳐도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보다는 앞서 말한 정의가 시간에 걸쳐, 공간에 분산되어 여럿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거 같다. 니체와 푸코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철썩같이 믿고 있는 형이상학적 상위개념들이 추악한 계보학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정의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정의란 역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앞으로는 추악한 역사가 아닌 빛나는 역사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일 테다. 우리 시대의 정의 또한 추악하지 않은, 빛나는 역사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되어 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내가 엄마의 정의관의 변화 덕분에 치유받았듯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시대의 정의의 적절한 변용 덕분에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교양교육원장상]

## 정의를 향한 발걸음

박찬우(경영학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노을 진 캠퍼스를 걷는 저녁이면, 종종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온. 어느 유명 화가가 팔레트 위에 물감을 조화롭게 풀어놓은 듯한 하늘. 잔디밭에 웅기종기 모여앉은 학생들의 대화 소리. 학생회관에서 새어 나오는 밴드 합주 연습 소리. 중앙도서관의 숨 막힐 듯한 고요함과 공부를 마친 학생들을 배웅하는 가로등 불빛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말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비단 캠퍼스 그 자체만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교정 곳곳에 녹아있는 청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가끔은 이 찬란함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 상상들은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손을 델 정도로 뜨거웠던 20대 초반에 대한 추억 회상으로 이어진다.

타오르는 자유 / 나아가는 정의 / 솟구치는 진리 / 민족의 힘으로 /  
자 지축을 박차고 / 자 포효하라 그대 /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고려대학교 응원가 〈민족의 아리아〉 中

새내기 시절, 어깨에 어깨를 걸고 수천 명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민족의 아리아〉를 들으며 마음속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 다시 돌아보니 그것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녹아있는 열정과 패기, 웅장함이었다.

고려대학교의 대표 응원곡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아리아〉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셨던 조지훈 시인이 쓴 ‘호상 비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친구와 함께 호상(虎像)을 방문하여 ‘호상 비문’을 처음 읽은 그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너 항상 여기에 자유의 불을 밝히고, 정의의 길을 달리고, 진리의 샘을 지키나니,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거라.” 대학을 단순히 학문적 자아실현의 장이나 훌륭한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발판 정도로 생각했던 스스로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올해 봄, 졸업 전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친구의 제안에 따라 ‘호상 비문’의 내용을 서예 방식으로 함께 필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이 듣고 외친 ‘자유, 정의, 진리’이지만 한 번도 그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써 내려간 그 시간만큼은 이 단어들에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새내기 시절 교양수업에서 접했던 고 김준엽 총장님의 “현실에 살지 말

고 역사에 살아라. 긴 역사를 볼 때, 진리와 정의와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씀이 떠올라 ‘정의’라는 키워드에 특히 더 꽂히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유명 취임사에도 등장하고,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도서의 주제이기도 하며, 우리 학교의 교육이념에도 포함되어있는 ‘정의’.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으나, 나는 정의(正義)의 정의(定義)를 이렇게 내리고 싶다.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것.’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나의 할아버지도 그중 하나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1인 1표’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소에 가실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생겨, 힘들게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얻은 뒤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거소투표라는 제도적 보조장치를 통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시민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다.

한편, 우리 학교도 최근 장애인 학우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잘 정비하여 이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필두로 장애인권위원회, 사회공헌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 등 다양한 학내 단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장애인 학우들을 지원한다. 하루는, 장애인권위원회에 가입할까 고민하던 친구의 제안으로 몇 시간 동안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배리어프리(barrier-free) 캠퍼스 지도에 소개된 장소들을 하나하나 방문해 본 적이 있다. 시각장애인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안온한 일상과 평범한 하루하루를 또 다른 누군가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기만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지난 수년간 매일 즐겁게 거닐 공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높디높은 장벽으로 느껴졌을 것을 생각하니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씩씩한 웃음이 떠오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금은 장애인 학우들에게도 평등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캠퍼스에 많이 퍼져있는 듯하다. 과거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떠올려 볼 때, 이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본격적인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되며 장애인 학우들의 오프라인 캠퍼스 생활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장애학생 교육지원학생’ 제도라고 하여 장애인 학생들의 필기와 이동, 시험 진행 등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친구를 통해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이게 바로 정의를 추구하는 대학의 바람직한 모습이지’라는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학교를 자랑했던 기억이 난다.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권은 ‘절대적 교육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게 배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교육 기관의 의무는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고,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학업 성취 결과까지 고려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은 정의롭지 않다. 그런 주장이 수용된 사회에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일상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배려를 받지 못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절대적 평등만을 강조하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의의 양태로 귀결될 수 없다. 비장애인들에게 투표소까지의 수송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도 아무런 수송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비장애인 학생들이 선착순 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므로 장애인 학생들도 선착순으로 마우스를 눌러 수강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 행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수험생들에게도 예외 없이 비장애인 수험생들에게 허용된 시간과 동일한 응시시간을 부여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준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과연 충분한 제도적 보조장치 없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각종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장애인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장애인들에게 각종 배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을 파헤쳐보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꾸준히 운동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하기 싫음에도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희망과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것’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정의가 있다고 믿고, 민주정치의 실현과 소외계층의 권익 개선을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면 이 땅 위에 정의가 실현되며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만들 수 있음을 이들은 믿었다. 1960년 4·18 민주항쟁에 참여하셨던 선배님들과 4·19 혁명에 참여한 국민들,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의 전태일 군과 여공들, 그리고 2022년 현재 고려대학교 교정의 학습권 개선과 장애인 학우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 모두 말이다.

우리는 안다. 호상 비문의 가치를 실현한 당신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부정의에 대한 저항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비록 앞길이 캄캄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소중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의 노력을 통해 배웠다.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일상 속에서, 친구와 ‘호상 비문’을 필사하며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내 인생의 Game Changer 역할을 해주었다. 차가운 취업 시장의 현실을 체감하며 의기소침하던 차였는데, 한 자 한 자를 써 내려가며 ‘나로 인해 주변인들이 행복해지는 삶’이라는 꿈을 향해 지치지 말고 씩씩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다짐하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성장해간다. 나무가 자라면서 나뭇잎을 남기듯, 사람도 시련을 만나 성장하면서 나뭇잎의 흔적을 남긴다. 온갖 편견과 반대를 딛고 일어서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소외 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피땀 흘린 분들의 노력에 비할 바 되지 못하지만, 고려대학교에서의 지난 수년 동안 내가 남긴 나뭇잎의 흔적은 무엇일까. 또 앞으로는 어떤 흔적을 남겨가며 살아야 할까.

고민이 가득 찬 밤이다.

아니, 정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찬 밤이다.